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다 찬양하여라(찬21/새21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창열 장로 2부/이여송 장로 3부/최병웅 집사 4부/이해원 집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참 좋은신 주님(김기영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Olivia Kim **김하루**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골로새서(Col.) 3:20-21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0:32-39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19) 가정은 '가슴학교'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35):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라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찬305/새559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아빠, 바빠, 나빠

Daddy, Busy, Ba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난 10여년 동안 제대로 휴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지나, 집회 때 외에는 본교회를 지키려고 가족들 데리고 어디를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 섬기던 교회에서는 안식년을 6개월 받았을 때에 아이들과 겨우 한 주간 같이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것도 안 했으면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가기전에는 가족이 함께 했던 시간은 전혀 없을 뻔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도 바빴는지, 지금 생각해 도 아이들에게 너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하지만, 이제는 다들 자기 가정이 있어서 그것도 용이치 않습니다.

막내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었던 집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철이 난 아빠가 딸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랑 어디 휴가 좀 같이 다녀올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직장도 없는 딸이 바쁘답니다. 엄마 아빠만 다녀오라고 합니다. 딸의 대답에 문득 서운한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랑 놀러간다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아 주더라도 했다면, 이렇게 쉽게 거절은 안 당했을텐데 싫어서 딸의 거절을 거울 삼아 회개하고 앞으로 딸과 평소에도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바빠 나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쁘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고, 같이 대화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서 같이 있어도 서먹서먹해 집니다. 밥을 먹으면, 엄마 아빠도 자녀들도 각기 제 방으로 들어가 인터넷 하기에 바쁘니 함께 앉아서 긴 대화를 할 기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큐티를 부모세대와 함께 하면서 대화의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회복된다는 피드백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온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오이코스 시간이었습니다. 온세대 큐티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세대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면 힘써 모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자주 가집시다. 바빠도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것보다, 중요한 것부터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바쁜 미팅 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면, 집 떠난 아이들도 돌아올 것이며,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지 못한 것도 용서가 될 것입니다.

No matter how hard I think about it, I can't remember taking a leisurely vacation in the last 10 years or so. Except for missions and speaking at revivals, to keep the church intact, I almost have never taken my family somewhere. While I was serving at my previous church, I received a 6-month sabbatical. During that time, I barely spent one week with my children. Now that I think about it, if I had not done that, I never would have had such a family time with my children before they got married. Whatever caused me to be so busy, even now when I think about it, it makes me feel I shouldn't have done that to my kids. Now I think about taking some time with them. With their families of their own, it's not easy.

My youngest daught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moved back home. Empty house feels vibrant again. Dad, matured at last, asks the daughter carefully, "Do you want to go on a vacation somewhere, with mom and dad? However, she says she's busy. She doesn't even have a job yet. She says mom and dad can go. I was a bit hurt by her answer, but then she probably wouldn't have much fun with us. If I had played with her when she was young, I think I may not have been rejected so easily. Reflecting on her rejection, I repented. I want to make some enjoyable moments with her daily.

There's a phrase "Daddy, busy, bad." In other words, busy daddy is a bad daddy. I totally agree. If you're busy, you spend less time with children. With not having spent time to converse and have fun with them, it's awkward even to be together. After a meal, mom, dad, and children all go to their separate rooms, too busy surfing internet. It's hard to find time to converse at length.

However, our church has opened a window of communication through doing QT with parents' generation. I often receive feedback from families that their family worship is restored. Yesterday was OICOS where all generations worshiped and prayed together. You could feel the power of all generation QT. Let's encourage each other and spend time with the next generation. Let's put our efforts into gathering at church. Let's gather often with our children to worship together. Let's vow, even when we're busy, that we will do what's important first rather than putting out fires. Rather than busy going to meetings, when we do what's important first by going before God to hear the Word and pray, children will return home, and not able to play with them when young will be forgiven.

주일 설교 시리즈: 골로새서 강해 (19)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Supreme Jesus!



가정은 '가슴학교'

(골 3:20-21)

1.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평안한지요?

2. 건강한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라 성경이 말씀하십니까?(18절, 20절)

3. 순종의 범위는 무엇입니까?(20절)

4.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를 참고 구절을 읽고 설명해 보십시오.(20절, 롬 13:1, 민 30:1-5)

5. 아버지에게 주신 자녀교육의 명령은 무엇입니까?(21절, 참고/ 엡 6:4, 잠 22:6)

적용하기



■ 적용찬양: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찬305/새559장)

선교
멕시코 과달라하라

별 위의 도시

처음에는 선교를 가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땅에서 과연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한국어보다 스페인어를 더 편하게 구사할 수 있어 선교팀과 현지 성도들 간에 서로를 연결하고 소통을 돕는 역할로 선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활동 중에 만난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함께한 팀원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감사함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 팀장님, 팀원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선교에 진심을 다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녀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 저는 앞으로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채지영 집사

저는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를 말해야한다고 늘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달라하라로의 선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 그 자체를 넘어서는 하나의 보편적 언어, 즉 복음과 성령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 주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스페인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달라하라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별 위의 도시(City Above the Stars)"입니다. 하루종일 교회에서 VBS를 진행한 뒤, 저녁 시간에는 현지 셀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셀모임을 위해 우리는 산자락 높은 곳에 자리한 한 가

정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아래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자동차의 빛을 보았으며, 그것은 셀모임에서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의 통역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무한함을 느꼈으며 모두가 하나의 동역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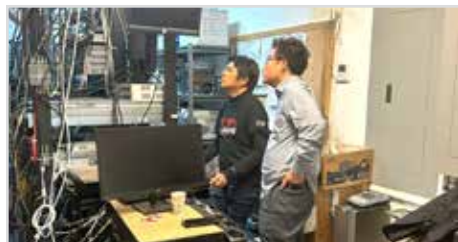
저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순간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선교였습니다.

황예린



사역
IT

하나하나의 데이터 속에 주님의 은혜가 담기길



베델교회 IT 사역팀은 교회 네트워크, 컴퓨터, 그리고 보안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분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와, 베델 성도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전역에 구축된 Wi-Fi 네트워크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사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 점검을 하고, 주일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혹시 있을 문제에 대비해 백업용 네트워크도 준비합니다. 또한 교회 내 어느 곳에

서나 하나의 Wi-Fi ID 'bethel-church'로 연결되어, 성도분들과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불편 없이 쾌적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예배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될 때,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간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분들이 Wi-Fi를 이용할 때, 하나하나의 데이터 속에 주님의 은혜가 담기길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각 예배당에 설치된 예배용 컴퓨터들과 다양한 사역에 사용되는 컴퓨터들의 유지/보수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분들이 계시기에, 원활한 예배와 사역들이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성도분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 카메라 관리, 사이버 보안을 위한 바이러

스 프로그램 운영까지 저희 IT 사역팀이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4-5)는 말씀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달란트로 함께 섬겨 주고 계십니다.

점점 늘어나는 성도들과 귀중한 사역들로 인해 저희 봉사팀이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교회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마다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강덕규 집사

신앙 상담(4)

주님,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성격이 느긋한 편입니까? 아니면 조금한 편입니까? 이해심이 많고 화를 잘 내지 않는 부드러운 편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하는 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을 구분하려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외모와 기질이 다른 만큼 서로의 성격 차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과 기질은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들었을 때 놀라서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반응이 문제입니다. 반응 여하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서 자신의 경계가 무례히 침범을 당하거나 모욕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화가 나도록 만드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는 우리가 모두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분노는 그 당사자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삶까지도 파괴시키고 깊은 상처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정신적 혹은 영적 장애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이유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적 상담학의 권위자인 아담스(Jay E. Adams)는 우리가 내는 분노에는 죄를 짓는 불의한 분노가 있고,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분노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의로운 분노도 잘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한정되어야 하며 항상 절제와 자제력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화내기를 더디 하며(시 103:8), 둘째, 까닭 없이 화를 내지 말며(마 5:22-24), 셋째, 화내는 것에 서두르지 말고(잠 12:16), 넷째, 화를 낼 때는 죄를 짓지 않으며(엡 4:26), 다섯째, 하루를 넘겨 화를 품지 말라(엡 4:26)고 합니다.

진심으로 화내는 습관으로부터 자유 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가?'라는 질문을 '아니요'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내는 것을 하루아침에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신경질, 화, 분노에 취약한 분들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권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다."(눅 23:34)

황성철 목사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보존기제(self-preservation mechanism)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성경은 절제된 가르침을 여러 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훈련
전도폭발

제 삶의 방향을 옮기도록 도우신 하나님



전도 폭발을 섬기시는 권사님의 권유로 저는 작년 가을부터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바쁘고 화요일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권사님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일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를 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 대상자를 설득할 만한 말주변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훈련자 권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1조 세 명과 기도 후원자 6명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대상자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오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지휘하고 열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 순간 불같이 소나기같이 감동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우리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나 복음을 듣는 대상자분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번 학기 10분의 귀한 대상자를 만나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해야 하는 때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선물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분들을 만날 것이 기대되고 그런 만남이 있을 때마다 영생의 폭포수를 활활 쏟아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자인 집사



처음에는 이 훈련을 단순히 전도 내용을 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안에 풀리지 않았던 영생의 문제, 구원의 확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 훈련을 받기 기다리고 계셨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하여 제 안에 영생의 확신을 주셨고 세상의 좋은 것만 바라던 제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옮

사역
새가족 환영회

베델의 식구가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딸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4월에 베델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뉴욕이지만 얼바인에서 살고 있는 딸 가족과 같이 신앙생활을 위하여 손자들과 함께 얼바인의 베델교회에 오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베델교회는 교인이 많은 교회라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 초대장을 보내 주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회장에 도착했을 때 환영식을 준비하신 분들이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장로님 한 분은 환영식을 기다리는 저희 부부가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대화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되어 김한요 목사님 내외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어와나 영상도 보며 교회를 더 알아가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는 새가족을 위한 테이블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희가 앉은 테이블에는 두 분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을 위하여 직접 정성 들여 푸짐하게 준비해 주신 맛있는 식사는 저희에게는 감동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식사 후, 목사님들과 운영위원회 분들의 소개와 게임으로 베델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베델교회의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의 탈을 벗을 수 있고 베델교회 성도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제는 새가족이 아니고 헌가족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도 베델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를 통하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주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홍원정 집사/홍선희 권사



찬양
베델콰이어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미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화,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환영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 말씀 묵상과 교제 시간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합성가합창제에 프로젝

트 콰이어 단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은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이 찬양제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자리였기에, 단순한 무대가 아닌 선교 사역의 일부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부른 곡 '모세'는 리듬과 선율이 쉽지 않은 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정과 박자를 따라가는 데 집중했지만, 반복된 연습 속에서 점점 가사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앞에서의 두려움과 불순종, 그리고 결국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제 자신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무대에서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온 마음을 감싸며 다가왔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여운이 오래도록 남았고, 그 감동 속에서 정식 콰이어 대원으로 함께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콰이어로 함께하며 더욱 깊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저에게 겸손과 순종의 삶을 다시 결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삶 속에서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귀하게 사 용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동현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홍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전도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가을학기 BAM 훈련 모집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 영상통화,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과도 종교, 철학, 사상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토론하고, SNS를 통해 전문적이거나 관심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확장된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주님이 명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마 28:19)는 복음화 명령은 더 이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BAM(Business As Mission) 훈련은 오늘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일터에 보내신 목적도 거룩하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성소)에서 그분의 뜻을 섬기는 모든 일은 성역이며, 직업은 성직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소명이며 예배요,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헌신이다"라는 선언은, 우리가 일 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은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주전 600년,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단 6:10). 그의 삶은 오늘 BAMer들이 추구하는 선교적 삶과 닮아 있으며, 베델 BAM이 찾고 있는 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고 살아보는 것! 직장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 하는 삶!" 말씀과 예배, 그리고 훈련을 통해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베델 BAM 훈련으로 초대합니다.

- ▶ 훈련기간: 8월 28일(목)부터 13주간
- ▶ 훈련방법: 1, 2단계 과정, 온라인 강의와 5-6명 단위의 스쿼드(소그룹) 활동
- ▶ 접수방법: 온라인으로 우선 신청, 8월 10일(주일)부터 본당 앞 모집부스에서 신청
- ▶ 문의: 이완희 집사 (949)431-4398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8월)	8/3:	①부-정우영	②부-임낙현	③부-최재호	④부-김태원
	8/10:	①부-이선갑	②부-정현근	③부-최호경	④부-김승진
	8/17:	①부-조관희	②부-주진철	③부-한 존	④부-김소라

헝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8월) | 8/2: 고스티브 8/9: 박성규 8/16: 기상원 8/23: 김건중

강단꽃(7,8월) | 7/27: 정윤아, 한보영 8/3: 김학남 8/10: 오경희, 조나원, 현승원 8/17: 윤주원, 최하자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마 준(한의학), 간호사-홍정미 다음주 | 의사-김태원(내과), 간호사-채수정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람),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김예평(김진명), 이상훈

*선교기관 | 나동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엘리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와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온유 목장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8월 5일(화)~8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온유 목장(담당 배홍수 목사)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말씀: 7월 23일 저녁 7시 30분, 조동현 목사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베델 양육반 모집(한/Eng)**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거나, 흔들림 없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싶으신가요? 베델 양육반에서 답을 찾으세요! 훈련된 인도자와 함께 견고한 신앙의 기반을 다지고, 귀한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영어 제자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방법: 8월 3일(주일)~8월 17일(주일), 홈페이지 또는 본당 앞 부스
 오리엔테이션: 8월 24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
 문의: (양육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Eng. DT) Rev. David Park (718)490-9931

◆ **제6기 베델기도학교 등록** 체계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여전히 예수님 한분께만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등록 마감일은 8월 10일(주일)입니다.
 교육 기간: 8월 14일~11월 13일(총 14주)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prayer@bkc.org



◆ **교회학교 큐티인 섬머 챌린지** 여름방학 시즌 동안 매일 큐티를 하고 주일에 책을 제출하는 아이들은 8월 10일(주일)에 시상이 있습니다. 여름의 햇살처럼 주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타오르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간/대상: 7월 14일(월)~8월 9일(토), 교회학교 어린이(영어부~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CIM 한어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런닝클럽'** 많은 청소년이 하나님을 알고 깊이 체험하므로 예수만 향해 달려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8월 6일(수)~8월 9일(토), 갈릴리 수양관
 등록: QR코드 및 CIM 단체 카톡방 구글 폼 링크
 회비: \$150 (다자녀 회비: 첫째-\$150, 둘째-\$125, 셋째-\$100)
 베델 교인이 아닌 친구 회비: 친구와 초청한 CIM 학생 모두 \$125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이성우 목사 (818)294-8535



◆ **초등부 여름수련회 'We Are'** 많은 학생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간: 8월 10일(주일)~8월 12일(화)
 장소: Irvine Outdoor Education Center
 문의: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 **베델한국학교 2025년 가을학기 교사 모집** 베델한국학교에서 개강을 앞두고 한국어 교육에 헌신할 교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가을학기 기간: 9월 6일(토)~12월 13일(토)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2, koreanschool.bkc.org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금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기도해 주세요**
 - 브라질 단기선교가 7월 22일(화)~29일(화)에 있습니다.
 - BYM 중등부 멕시코 단기 선교가 7월 28일(월)~8월 2일(토)까지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오늘 3부 예배에 김도널드/이민아 성도의 딸 김하루(Olivia)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정필권/김수양 성도의 가정에 딸 단아(Dahna)가 7월 19일(토)에 태어났습니다.
 - 박문수 집사/김명숙 권사의 딸 박애리 양과 지재홍 군의 결혼식이 7월 19일(토)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정순한 성도님(이지현 집사의 모친, 박홍근 집사의 장모)께서 7월 19일(토)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현자 권사님(강원근 목사의 모친, 강숙영 사모의 시모)께서 7월 24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헬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 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COLOSSIANS LECTURE (19)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Supreme Jesus!



Family is 'School of the Heart' (Colossians 3:20–21)

1. We are currently living in a period where many families are destroyed. Is our family at peace?

Apply to Life



2. According to the Bible, what is the cornerstone of a healthy family? (v. 18, 20)

3. To what extent is obedience required? (v. 20)

4. Please read the referenced verses below and explain why obedience pleases our Lord.
(v. 20, Ref: Rom 13:1, Num 30:1-5)

5. What is commanded of fathers in regard to the upbringing of children? (v. 21, Ref: Eph 6:4, Prov 22:6)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All Year in Our Home the Spring Breezes Blow(Hymn 305)